

특별기고



김영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

마트에 가서 간장, 된장 등이 있는 장류 코너를 지나다 보면 판매원이 상품을 추천해주곤 한다. 이때 상품을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산지다. '국내산' 이면 사물까 생각해보지만 '수입산' 으로 되어 있으면 선뜻 구입하기가 꺼려진다. 혹시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생산량을 늘리고, 병충해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자 유전공학기술로 개발된 농산물이다. 1994년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최초로 상품화된 이

'Non-GMO' 학교급식, 블루오션이다

래, 지금은 콩, 옥수수, 황금쌀 등 제초제와 해충에 잘 견디고 영양성분이 강화된 농산물부터 카페인 감소된 커피 등 맞춤형 주류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도내 모든 학교 식재료 지원

유전자변형식품이 늘면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일부 연구결과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유전자변형식품 섭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 재배가 불법이라 생산하지 않지만 세계 1위인 일본에 이어 주요 수입 국가 중 하나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심시대는 아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마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전남도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올해부터 GMO 없는 학교급식을 위해 힘쓰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도내 모든 학교에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인 국내산 콩을 원료로 하는 간장, 된장, 두부 3 품목을 공급한다. 그동안 서울, 경기 등지에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Non-GMO 가공품을 지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Non-GMO 식재료를 전면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전남도가 처음이다.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가 Non-GMO 식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생산업체에서 발행한 GMO 검사결과 보고서,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더 나아가 각 시군별로 학교에 공급된 가공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GMO 전문검사 기관에 안전성 검사(GMO 성분검사)를 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첫 시행이라 지원품목이 간장, 된장, 두부 3품목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옥수수 콘 등 지원품목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담양군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Non-GMO 학교급식 공급자

로 선정돼 80개 학교에 22개 품목, 17억 원을 납품하게 됐다. 서울시가 연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2,500여 모든 학교에 Non-GMO 가공식품을 공급하게 되면 관계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한 농산물 이용 첫발

Non-GMO 학교급식 공급사업은 전남과 서울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과 각 지방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들이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지역도 동참을 촉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Non-GMO 학교급식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걸음마 수준으로 초창기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Non-GMO 가공식품은 학교와 우리 가정의 식탁에 오를 것이다. 어릴 때부터 유전자변형 식품에서 벗어나 안전한 농산물을 이용한 식재료로 입맛을 들이면서 성장해서 더 찾을 수밖에 없다. Non-GMO 학교급식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농업부문의 블루오션이다.

기고



김옥중
광주시 5·18선양과장

매주 목요일에 방송되는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모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에 처음 와본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몰랐던 한국을 새롭게 그려내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터키편에서 방송인 알파고와 터키친구들의 역사여행이 방송됐다. 알파고는 '한국의 빠른 민주화 여정을 보여주지 위해 여행을 기획했다'고 했다. 알파고는 '터키와 한국의 역사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큰 문제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의식 때문이다'고 했다.

터키 친구들은 청와대 사방재로 가서 독립 이후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의 이야기, 5·18민주화운동의 희생, 6월 민주항쟁,

최근 촛불혁명 등에 대해 관망했다. 터키 친구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항상 싸우는 중이다'고 감탄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두 개의 구체적인 사건이 언급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 등장하는 3·1운동과 4·19혁명이다. 올해는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가 또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90여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4·19혁명은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아우르는 한국 민주주의가 이룬 역사이자 오늘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기준이다. 2017년 겨울 광장으로 이어진 촛불은 한국 국민이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역사적식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5·18은 슬픔이지만 당연히 자긍심이기도 하다. 특히 역사적 평가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1997년" 12·12, 5·18재판 '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사법적 단죄를' 받았고,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민주화운

동 '으로 명명' 됐다. "2011년 5·18기록물은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등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했으며, 나아가 냉전체제를 깨트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폭압적인 상황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은 시민들과 이를 글로 남긴 기록 덕분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오월의 죽음과 광주 of 아픔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대표하여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 '네 명을 언급하였다.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박래전과 부산에서 태어나 '광주학살 책임져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노동자 황보영국의 광주와는 관련 없지만 '오월 광주'의 진실규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지난주 금요일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2000년부터 경성남

도 통영시에서 열리는 2019 통영국제음악제가 개막되었다. 윤이상이 독일에 있을 때, TV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접하고, 5·18을 기리기 위해 '광주여 영원하라' (Exemplum in Memory of Gwangju)를 작곡했다고 한다. 윤이상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동아시이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말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세계적 '모범(example)'이라는 인식에서 서양 보편 언어인 라틴어 'Exemplum'로 표현했다.

5·18 당시 김준태 시인은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라는 시에서 오월 광주를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참존의 도시'라고 했다. 여전히 5·18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조차 일부 망언자들이 5·18을 왜곡·폄훼했다. 오월 유가족들과 광주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광주 금남로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5·18 망언자들을 규탄하고 있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광주를 기억하였고, 광주의 아픔을 함께 하였다. 여전히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광주는 인류의 양심과 기억의 일부로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오월 광주, 세계사에 빛나는 민주주의 햇불이다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있다. 셋째,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으로는 첫째,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해야 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결

·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셋째,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산불이 계속 번져서 고립되었거나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터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끊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위에서 말한 기본적인 행동요령을 숙지한다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진민호

사설

공립유치원 증설, '혈세낭비' 없어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정원이 남아도는 지역에 또다시 정원 신·증설을 추진해 '혈세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있는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한 공립유치원이 수두룩한데 또다시 정원을 늘리겠다는 시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9월까지 빛여울초·하남중앙초·어등초 등 공립유치원 22곳에 31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신설 지역은 맞벌이 가정이 많고, 특수교육 수요도 많아 단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현재 광주 시내 공립유치원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꼭 시민 혈세를 들여 공립유치원 정원을 늘려야 하느냐는 맞벌이 나온다. 실제로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동부 관내 51곳의 공립유치원 중 정원을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15곳에 달한다. 서부 관내도 마찬가지다. 공립유치원 79곳 중 단설유치원을 제외한 38곳이 정원 미달 상태다.

광주 전체를 놓고 보면 국공립유치원 130곳 대다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정원의 80%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수는 그대로여서 20여개소가 원아 10명에 교사 2명의 과잉원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공립유치원 주변 사립유치원들은 정원의 30%도 채우지 못한 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구도심 사립유치원들의 경우 정원은 고사하고 폐원을 고려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정원 신·증설을 고집해야 하는지 시교육청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공립유치원 중 정원을 50%도 채우지

광주시민 염원 철저히 외면한 한전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배구단이 지난 5일 수원시와 연고지 3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연고지 협약은 4월 말에 끝나지만 광주시와 정상적인 협의의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지역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

한전 측은 지원조건, 체육관 시설, 관중 동원 능력, 선수단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끝에 수원시가 수도권에 경기장에 있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점과 그동안 지원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재협약을 체결한 것은 150만 광주시민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그것도

이용섭 시장이 경기 의왕에서 선수들에게 연고지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철저한 보안 속에서 단행한 결정이어서 한전의 지역민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북 김천혁신도시로의 분사 이전을 계기로 산하 여자배구단의 연고지도 김천으로 이전했다. 한전의 러비팀도 전남에 연고지를 이전했다. 한전 분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분사와 배구단이 동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수원과 3번째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정치 논리를 떠나 유서 깊은 광주 배구계의 한계도 무시하고 지역민을 배척한 한전의 태도와 상충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길이 요원해 보인다.

국립국악원 광주 유치 역량 집중해야

기지수첩

광주시가 국립국악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국악 계승과 보존을 위해 지난 2000년대부터 국악원 유치를 추진했다. 국립 광주국악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국립국악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광역도시에 국악원이 설립되면 접근성, 이용 편리성, 전국 대표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와 국립국악원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시립국악단, 민간 국악 단체와 연계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국악원 유치를 통해 국악을 생산·보급·향유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악원을 전통예술 보존·계승을 위한 필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국악 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전이 치열해지자 광주시는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 국악원 유치를 2020년 국비 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황에란
정기부 차장

최근 광주시가 브랜드 공연으로 선보인 국악상설공연 성공은 연장선이다. 광주 정신과 이야기를 담은 창작 국악 등을 선보여 광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5회 공연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주국악 상설공연'은 광주수영대회 기간에는 매일 공연해 전 세계에 광주다움을 알린다.

광주는 남도에 산재해 있는 판소리, 농악 등 국악을 체계화해 보존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국악원 활성화에 최적이다. 농경문화 발달로 전통문화 예술 자원이 풍부하고, 국가무형문화재 80% 이상이 지역 출신으로 국악 활성화 기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국악이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광주에 국립국악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치권, 지역이 역량을 집중할 때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and public utility.

Table with 3 columns: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and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headquarters and regional offices.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